

UN 사무총장 기후협상 촉진 위해 유엔 총회에서 정상회의 주선

2015.9.1, Ed King / 반기문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파리의회의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UN 총회 부대행사인 기후변화 세션에서 의장 말기로

출처 = <http://www.rtcc.org/2015/09/01/un-chief-to-speed-climate-talks-with-new-york-leaders-meet/#sthash.atQODq3i.dpuf>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간 중인 9월 27일 40개 국가 정상들을 별도로 초청하여 “비공개” 회의를 갖고 신기후협정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UN 관계자들이 현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중국, 인도, 미국, EU 회원국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알렉시스 라멕(Alexis Lamé) 프랑스 UN 대표부 차석 대표는 “9월 말 기후변화를 주제로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으려는 노력은 파리의회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며, “정상들은 파리의회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 이라고 말했다.

11월 말부터 2주간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거의 200개 국가 정상들이 참가해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다. 파리의회의를 위해 남은 별도의 협상회의는 8일 정도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올해 기후변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조급함을 표출해왔다. 6월에는 기후변화 협상이 “굼벵이처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월요일 시작된 기후변화 협상회의*는 83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 제안들을 보다 간결한 문서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DP: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진행을 위한 전 단계인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 작업반(ADP) 회의.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 차기 ADP 협상회의는 10월.

군소도서국 협상 대표 암자드 압둘라(Amjad Abdulla)는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군소도서국이 위험이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 NASA가 발표한 자료는 기후 위기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로,

지구의 해수면 상승이 이미 1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로 인해] 이번 세기 말에는 (뉴욕, 상하이, 뭄바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많은 군소 도서국, 저지대 연안 국가들이 완전히 수몰되는 지경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홍수를 겪을 위험에 처해있다.”

하지만 일부 대규모 기후변화 협상그룹들이 발표한 개막 성명들을 보면 여전히 상당한 의견 차이들이 눈에 띈다.

아프리카 국가와 군소도서국 대표들은 자국의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선진국이 제공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데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인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가 속한 협상그룹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에게도 탄소배출 감축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가 발표한 성명서는 “협상문에서 그런 개념을 빼야 한다” 라고 썼다.

한편 모하메드 애도우(Mohamed Adow)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 단체 기후 자문은 이번 ADP 협상 첫 이틀 동안 마샬 제도의 제안-장기 배출감축 목표 및 5년 마다 경과 검토-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어제 마샬 제도의 제안들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합들이 형성되어 마지막 협상문에 들어갈 바람직한 내용들을 지지하고 있다.” ... ” 이런 논의들은 최종 협정문의 기초가 되는 이슈와 문안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